손흥민, 이번엔 환상적인 중거리 슛

손흥민(토트넘)이 환상적인 왼발 중거리 슛으로 2경기 연속 골맛을 봤다.

레스터시티 전 1골 1도움…2경기 연속 골

손흥민은 9일(한국시간) 영국 레스터의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2019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지난 6일 사우스햄튼전에서 유럽 무대 통산 100호골의 업적을 남긴 손흥민은 2경기 연속 득점포이자 리그 세 번째 골을 가동했다.

손흥민의 골은 0-0으로 맞선 전반 추가시간에 터졌다.

페널티 박스 바깥 오른쪽 측면에서 내준 땅볼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한 차례 드리블로 공간을 만든 뒤 벼락같은 왼발슛으로 골망을 갈랐다. 카스퍼 슈마이켈 골키퍼도 손쓸 도리가 없었다.

2018 러시아월드컵 멕시코전에서 나온 득점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었다.

해리 케인과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빠지면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던 토트넘에게는 단비 같은 한 방이었다. 벤치에서 보고 있던 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로 손흥민을 축하했다.

손흥민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후반 13분 왼쪽 측면에서 정확한 크로스로 델레 알리의 헤더 골을 도왔다. 이번에는 오른발 킥으로 도움을 추가했다.

1골1도움으로 임무를 완수한 손흥민은 원정팬들의 기립 박수 속에 후반 29분 그라운드를 빠져나갔다.

손흥민을 앞세운 토트넘은 레스터 시티를 2-0으로 제압, 2연승에 성공했다. 승점 36(12승4패)로 3위를 사수했다.

뉴시스

포체티노 감독 "손흥민, 우리가 원하는 그 선수"

연일 거듭되는 빼어난 활약에 박수 갈채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토트넘 핫스퍼 감독도 연일 거듭되는 손흥민(토트넘)의 빼어난 활약에 박수를 보냈다.

손흥민은 9일(한국시간) 영국 레스터의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2019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포체티노 감독이 반색한 것은 당연했다. 포체티노 감독은 경기 후 손흥민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 너무 많은 여행을 해 초반 몇 개월은 다소 실망스러웠다"고 떠올렸다.

2017~2018시즌 종료 직후 러시아월드컵 체제에 돌입한 손흥민은 잠시 소속팀으로 돌아간 뒤 8월 중순부터 자카르타·팔렘방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다. 9월과 10월에는 다시 한국으로 날아와 A매치 4경기를 뛰었다. 체력이 좋은 손흥민도 부담을 느낄 정도의 빡빡한 일정이었다.

아시안게임 출전을 둘러싼 대한축구협회과 토트넘의 합의로 11월 A매치를 건너뛴 손흥민은 휴식 이후 5경기에서 3골을 몰아넣으며 공격 본능을 맘껏 뽐내고 있다. 체력을 되찾으면서 그라운드에서의 자신감을 되찾은 모습이다.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은 집중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지금 우리는 그의 모습에 행복하다.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그 선수다"고 칭찬했다.

한편 손흥민은 득점 상황에 대해 "항상 연습하던 위치에서 골을 넣어 특별하다. 그 곳에서 슈팅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윤성빈, 평창 이후 첫 월드컵서 銅…"첫 경험 트랙서 좋은 결과 기뻐"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썰매 사상 첫 메달을 금빛으로 장식한 '아이언맨' 윤성빈(24·강원도청)이 2018~2019시즌 첫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월드컵 대회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윤성빈은 8일(한국시간) 라트비아 시굴다에서 열린 2018~2019 IBSF 월드컵 1차 대회 남자 스켈레톤에서 1·2차 시기 합계 1분42초40을 기록해 3위에 올랐다.

평창올림픽에서 윤성빈에 이어 은메달을 딴 니키타 트레구보프(23·러시아)가 1·2차 시기 합계 1분41초87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홈 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은 윤성빈의 라이벌 마르틴스 두쿠르스(34·라트비아)가 1·2차 시기 합계 1분42초24로 은메달을 가져갔다.

평창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스켈레톤 황제' 대관식을 치른 윤성빈은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고 훈련에 매진했다.

하지만 만족스러울 만큼 훈련을 하지 못했다. 평창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지어진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와 실내 아이스 스타트 훈련장을 예산 문제 때문에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

또 예산과 지원이 줄어들면서 해외 전지훈련 기간도 짧았다. 지난 7월 소속팀 지원으로 약 20일 동안,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10월 말부터 열흘 동안 캐나다에서 전지훈련을 한 것이 전부였다.

그럼에도 윤성빈은 시즌 첫 월드컵 대회에서 메달을 목에 걸며 건재함을 뽐냈다.

윤성빈은 레이스를 마친 뒤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를 통해 "시굴다 트랙은 처음 경험하는 트랙이라 경험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임했다. 좋은 결과까지 거둘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성빈이 8일(현지시간) 라트비아 시굴다에서 열린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월드컵 1차 대회 남자 스켈레톤 경기를 마치고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이어 "시굴다 트랙은 소문대로 까다로운 트랙이었다.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을텐데 아쉽다"며 "그래도 최선을 다한 결과에 만족한다"고 전했다.

차준환(사진 가장 오른쪽)이 8일(한국시간)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주 밴쿠버의 선더버드 아레나에서 끝난 2018~201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남자 싱글에서 동메달을 딴 후 시상대에 올라 미소를 짓고 있다.

'개인 최고점' 차준환, 그랑프리 파이널 銅…남자 싱글 사상 최초

한국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17·휘문고)이 한국 피겨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차준환은 8일(한국시간)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주 밴쿠버의 선더버드 아레나에서 열린 2018~201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74.42점을 획득, 전날 쇼트프로그램(89.07점)과 합해 총 263.49점을 얻어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4위였던 차준환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91.58점, 예술점수(PCS) 83.84점, 감점 1점을 받아 순위를 한 계단 끌어올려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차준환은 프리스케이팅과 총점에서 모두 올해 9월 ISU 챌린저 시리즈 어텀 클래식에서 기록한 자신의 ISU 공인 종전 최고점인 169.22점, 259.78점을 모두 갈아치웠다.

ISU 피겨 그랑프리 파이널은 시니어 그랑프리 6개 대회 성적을 합산해 상위 6명이 출전하는 '왕중왕전' 성격의 대회다.

그랑프리 2, 3차 대회에서 연달아 동메달을 따내 한국 남자 싱글 선수로는 최초로 그랑프리 파이널에 출전한 차준환은 역시 최초 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남녀 싱글을 통틀어 그랑프리 파이널에 진출한 것도, 메달을 딴 것도 2009월 12월 2009~2010시즌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우승한 이후 9년 만이다.

6명의 선수 가운데 두 번째로 연기에 나선 차준환은 '로미오와 줄리엣'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에 맞춰 연기를 시작했다.

차준환은 첫 구성요소인 쿼드러플 토루프(기본점 9.50점)를 뛰고 착지하다 중심을 잃어 엉덩방아를 찧었다. 기본점이 7.13점으로 떨어지고 회전수 부족 판정이 나와 수행점수(GOE)를 3.57점이나 잃었다.

하지만 더 이상 흔들림은 없었다. 차준환은 쿼드러플 토루프보다 성공률이 높은 쿼드러플 살코(기본점 9.70점)를 완벽하게 뛰어 GOE를 3.05점이나 따냈다.

트리플 러츠-트리플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기본점 10.80점)마저 깔끔하게 뛴 차준환은 스텝 시퀀스 플라잉 카멜 스핀을 모두 레벨4로 처리한 후 코레오그래픽 시퀀스로 연기를 이어갔다.

차준환은 이어진 트리플 악셀-더블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기본점 9.30점)을 깔끔하게 소화해 GOE 1.71점을 챙겼다.

이어 가산점이 붙는 연기 후반부에 배치한 트리플 악셀(기본점 8.80점), 트리플 플립-싱글 오일러-트리플 살코 콤비네이션 점프(기본점 11.11점), 트리플 루프(기본점 5.39점)를 모두 실수없이 뛰면서 모두 GOE를 수확했다.

차준환은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과 체인지 풋 싯 스핀을 모두 레벨4로 처리하며 연기를 마무리했다.

올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점프 괴물' 네이선 첸(미국)이 프리스케이팅에서 189.43점을 획득, 전날 쇼트프로그램(92.99점)과 합해 총 282.42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피겨 남자 싱글 은메달리스트 우노 쇼마(일본)가 총점 275.10점으로 은메달을 땄다.

뉴시스